

전북대, 장기이식용 복제돼지 본격 연구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바이오 분야 전문 기업 엠젠플러스 협약 체결

전북대가 기업체와 손을 잡고 장기 이식용 복제돼지 연구에 나선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 교수)이 바이오 분야 전문 기업인 ㈜엠젠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인간과 매우 유사한 돼지 유전체 지도 완성을 통해 형질전환 이종 장기이식용 돼지 생산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해당 분야 전문기업인 엠젠플러스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이날 엠젠플러스와 연구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이종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복제 돼지에 관한 연구와 형질전환 돼지를 이용한 의생명 분야 질환모델 동물 확립에 관한 연구다.

특히 양 기관은 형질전환 이종장기 이식용 돼지 생산에 관한 표준작업절차를 제작·생산된 돼지에 관한 품질을 관리하고 유전적 평가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돼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면역관련 유전자 명칭의 기법공연을 시작으로 전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여기에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돼지 상용화를 위한 표준작업절차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의약품, 치료제, 질병 등 장기 이식 관련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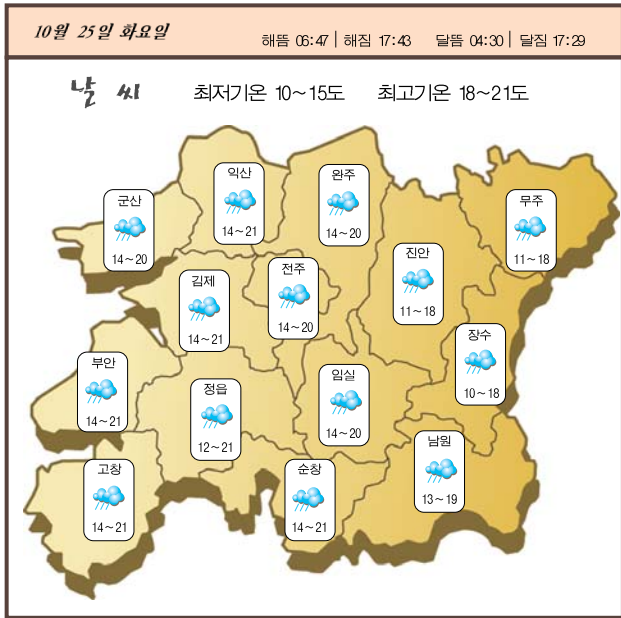


명인들의 한미당 2016 무형문화재 주간 전주의 명인, 명장 기념식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무형유산 계승을 위해 수십 년간 애써온 명인, 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어진박물관 트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판소리(수궁가왕기서 명창의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전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장기 이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 간 장기이식은 부족한 장기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쥐와 같은 소형 개체보다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장기의 크기도 비슷해 바이오 장기 생산에 최적의 동물로 평가받고 있어, 동물 실험을 통한 질환 연구 시 더욱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

단은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 21'에 선정돼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으로 경제기초 유전체 해독 및 경제형질육성분석기술을 확보해 신동물 생명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형기자



완산구청, 홀로어르신 꽃심사랑 일촌맺기

완산구청(구청장 이용호)에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홀로어르신 꽃심사랑 일촌맺기' 사업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홀로어르신들과 일촌 결연을 맺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있다. 홀로어르신 꽃심사랑 일촌맺기 사업은 18개동 자생단체와 공무원 485명과 독거노인 485명으로 1:1 결연을 맺고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와 밀반찬, 후원물품,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삼천3동 박모씨(84세)는 "안부

전화 주는 것도 고마운데 방문까지 해줘서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어 좋았고 밀반찬까지 챙겨주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족청소년과(유정옥과장)은 "헤아 바깥수목 목거노인 수는 증가 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해맑은 어린이처럼 즐겁고 따뜻한 수 있도록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나눔 문화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지렁이생태학습장 사업성과 시민들과 공유

시민행동21, 전주 시의회·시니어클럽 등 50여명 참여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렁이생태학습장의 운영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행동21(대표 김종만)은 24일 전주시시혁신센터에서 전주시 관계자와 전주시의회, 사업관련 단체인 전주시니어클럽 사회작업팀(사)아름다운환경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시의 지원으로 지난 2년간 진행된 지렁이생태학습

장 사업성과를 행정 및 시민들과 공유하고, 올해 진행한 환경부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 진행보고가 이뤄졌다. 전주지역에서 운영중인 지렁이생태학습장 중 지난 2014년 개소한 송천동 서호파트의 지렁이생태학습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근 주민과 유치원 학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곳은 전주시니어클럽과의 업무 협약 체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면서 다른 지역 주민들도 견학을

오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삼천동 흥진1차아파트와 중화산동 거성화산아파트, 효자동 한강아파트에서 운영중인 지렁이생태학습장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렁이생태학습장이 이처럼 주민들의 참여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올해 4곳의 지렁이생태학습장 운영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이와 관련, 시민행동21은 전주시와 함께 2016 환경부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자로 선정됐으며, 그간 식재료관리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김종만 시민행동21 대표는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보고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감량과 분리배출 활성화, 친환경자원재순환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역문제도 연결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추진

전주시는 지난 1967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주 도시발전상을 담은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하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전주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의 매칭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년도 항공사진과 국토지리정보원 8개년도 총 14개년도 필름지상태의 항공사진을 영상보정과 정위치 편집 등의 작업을 거쳐 디지털화된 정사영상으로 제작한다. 시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이 완료되면 전주시 주요 시각자료인 항공사진의 안전적이고 체계적인 영구 보존으로 관리비용절감 효과와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책 수립의 시계열자원 등 행정업무 전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시계열 항공사진을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문화원 등에서 교육·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도에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항공사진 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도시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시계열 정사영상은 과거를 토대로 전통성을 지켜가며 미래지향적, 계획적인 도시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의 사열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